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명동2가)
전화: 02-727-2114 팩스: 02-727-2232
전자우편: ytas@seoul.catholic.kr



Episcopal Vicar for Social Ministry
ARCHDIOCESE OF SEOUL

74, MYEONGDONG-GIL, JUNG-GU,
SEOUL 04537, KOREA
TEL : 822-727-2114 FAX: 822-727-2232
E-mail: ytas@seoul.catholic.kr

사회복지 20 - 002 - 315

2020. 4. 14

수 신 : 본당신부님

참 조 : 사목회장, 남성/여성총구역장, 사회사목분과장, 청소년/청년사목분과장,
초중고등부주일학교, 청년연합회

제 목 : “장애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본당의 사목적 배려” 제안

† 주님의 평화

존경하는 신부님께

성무에 애쓰시는 신부님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에, 가톨릭교회도 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2020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의 주제인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본당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본당의 사제, 수도자, 교우들이 함께 장애를 가진 신자와 가족들에게 본당공동체 안에서 신앙 활동을 하고, 전례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당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목 제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장애인의 날(4/20)’ 담화문 활용 (첨부 1 참조)

: 미사가 재개되는 시점에 따라, 미사 중 요약하여 강론 중에 교우들에게 전달

2. 사목 제안 (첨부 2 참조)

가.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운동

나. 본당 내 장애인의 활동 기회 마련

다. 본당 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이동공간 확보

라. 장애인들이 본당에 올 수 있도록 비장애인 교우들의 안내와 도우미 봉사활동

※ 문의 : 김태환 가브리엘(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교회복지활동지원담당, 02-727-2244)

* 첨 부 : 1. 장애인의 날 담화문 1부

2. “장애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본당의 사목적 배려” 제안 내용 1부

유 경 춘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주교 유 경 춘